Nature, Our Future!

오대산 국립공원

ODAESAN NATIONAL PARK

6.선재길

오대산의 여섯 번째 이야기

선재길

선재길 소개

문수보살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보살입니다. 이러한 문수 보살의 지혜를 시작으로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화엄경〉〉 '선재(동자)'의 구도의 길이 바로 선재길입니다.

선재길에 깃든 역사

선재길을 처음 지나간 사람은 기록상으로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때 자장율사 입니다. 이후 보천태자와 효명태자가 이 길을 지나 상원사 쪽에 터를 잡고 수행을 했고, 그 다음은 성덕왕이 진여원(지금은 상원사)을 창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며, 나옹대사는 매일 월정사에서 부처님께 공양할 것을 들고 상원사까지 왕복을 했다고 합니다.

선재길 탐방로

대부분이 평지이고 가을이면 계곡을 따라 물드는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선재길은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의 9km 숲길로 60년대 말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불교 신도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선재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옛 사람들의 흔적에서 과거의 문화를 만날 수 있고, 오대천을 품은 숲 터널을 지나면서 다양한 동식물도 볼 수 있습니다. 탐방로를 따라 개설된 진입도로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선재길은 차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안전한 저지대 탐방로 입니다. 날씨, 신체 상황 등에 따라 탐방로 구간에 있는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버스는 대략 1시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제수탈의 아픈 흔적

회사거리와 화전민

회사거리

오대산국립공원에는 회사거리라는 이름이 붙은 터가 있습니다. 오대산에서 벌채한 목재를 가공하는 조선총독부 목재회사가 있던 곳이라 해서 붙은 지명입니다. 일제는 목재를 수탈하기 위해 월정사 앞을 가로지르는 목차 레일도 설치 하였습니다. 해당 레일의 일부는 지금도 선재길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기록으로 본 일제의 오대산 목재 수탈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기록물에 따르면 총 6회에 걸쳐 오대산 월정사 소유 토지에 대한 벌채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총독부는 월정사의 부채를 대신하여 벌채를 강원도지사에게 허가하였는데 이는 월정사가 진 빚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당시 월정사는 동양척식회사의 지배 구조하에 있던 조선식산은행에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대가로 월정사 소유의 산림에 대한 나무 벌채권을 조선식산은행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1930년 조선총독부 기록물건(벌채 허가 사유)

1930년 조선총독부 기록물건(벌채 허가 사유)



협궤철도

산림철도는 1912년 북한의 함경북도 경흥군 토리에서 서수라 사이에 부설된 것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 목재가 많이 생산되는 산림지대에 다수 설치 되었으며 주로 산에서 벌목한 목재를 선재길에는 일제 강점기에 두로령 등 고지대의 산림을 주문진항으로 운반하기 위한 산림철도가 있었으며 최근까지 레일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목도소리

나무를 베고 산 아래로 운반할 노동력이 필요했던 일제는 산에서 사는 화전민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숲에 불을 놓아 화전을 일구다가, 겨울철 등에 벌목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벌목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노동요 '목도소리'는 아직도 오대산 일대에서 구전됩니다. 목도소리는 인부들이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면서 내는 소리이며, 힘든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힘을 북돋우고 호흡을 맞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목도 모습



화전민들의 벌목

QR로 보는 오대산

목도소리 영상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동피골 목도소리 영상

화전민의 주거(너와집, 귀틀집)

강원도의 화전민은 대부분 귀틀집에 너와지붕을 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귀틀집은 지름 15cm 되는 통나무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삼고 나무와 나무 사이의 틈에 진흙을 발라 바람이 들지 않게 만든 집입니다. 방틀집·목채집·틀목집·말집·투방집 등으로도 부릅니다.

QR로 보는 뉴스 「'목재 수탈, 화전민 착취…, 일제강점기 '아픈 기억' 간직한 오대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033) 332-6417

FSC PRINTED WITH SOY INK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화전민 이야기

선재길 구간에서는 약 50여 기의 화전민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75년 오대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때에도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화전민들은 봄에 옥수수를 심고 가루로 만들어 곤드레나물과 함께 죽처럼 쑤어 먹으며 살았을만큼 삶이 궁핍했습니다. 회사거리의 목재 회사들은 화전민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후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고 되려 매질을 하며 화전민들을 착취했습니다. 전국의 화전 농가는 1965년 4만 7천여 호에 이르렀는데, 그중 강원도가 2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968년 화전정리법이 공포되고 정부가 화전민들은 타 지방에 정착시킴으로써 1976년에 화전 정리가 끝났습니다.



선재길 화전민터

보메기

보메기는 선재길 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만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각지에서 목재를 수탈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오대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목재를 이곳 보메기 계곡을 가로막아 나무 댐을 조성하여 겨우내 벤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뒤 여름철 비를 이용하여 보를 무너뜨려 하천으로 한꺼번에 목재를 흘러내리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보메기라는 명칭은 보를 막는다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보를 막다 → 보막이 → 보멕이 → '보메기'로 변했습니다.



보메기

조선의 역사를 품고 있는

오대산사고

오대산사고

사고(史庫)란 역사책과 자료를 보관하던 건물로 오대산사고가 설치된 것은 1606년(선조 39)입니다. 조선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와 같은 왕실의 소중한 기록을 보전하기 위해 춘추관사고, 충주사고, 성주사고, 전주사고 등 네 곳에 보관시설을 설치하 였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전주사고를 제외한 3곳을 잃었고, 실록을 재간행한 후 그 실록을 다시 춘추관, 정족산,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등 5곳에 사고를 두어 보관하였습니다.
춘추관사고는 이괄의 난으로 소실되었으며, 묘향산사고는 후금의 침략을 우려하여 적상산으로 옮겨 최종적으로 사고 네 곳에 실록을 보관하였습니다.
사고를 큰 절이 있는 큰 산에 설치했던 이유는 산이 깊어 비밀스럽게 관리하기 용이하고, 수호 사찰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하기 위해 오대산사고의 건물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두어 통풍이 좋게 하였고, 창문은 이중으로 안과 밖에서 열리도록 하여 햇빛으로부터 서적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오대산사고의 위치는 바람, 물, 불의 피해가 없는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대산사고



아름다운 선재길 속의

식물



동의나물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의 끝이 둥그스름하고 무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식용인 곰취와 비슷한데 독이 있어 독의나물이라 불리던 것이 동의나물이 된 것입니다.

애기앉은부채

애기앉은부채는 꽃의 모양이 가부좌를 튼 부처님을 닮았고, 불염포는 그 후광 같이 보여서 앉은 부처라고 불리던 것이 차츰 앉은 부채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붉은색의 꽃받침인 불염포가 수류탄 같은 모양의 꽃을 보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미나리냉이

잎사귀의 모습이 미나리잎의 모습과 닮아있고, 꽃은 냉이와 닮아 미나리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하얀색의 꽃이 옹기종기 모여 피어 탐스럽게 보입니다.



물푸레나무

선재길 가는 동안에 여러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물푸레나무입니다. 물푸레나무는 가지를 꺾어 물에 담그면 물이 파랗게 된다고 하여 물푸레나무라 불립니다. 나무가 단단하고 질겨 야구방망이나 도끼자루로 많이 이용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거제수나무

자작나무, 사스래나무와 함께 자작나무과에 속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절기 '곡우(穀雨)'를 전후하여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물인 '곡우물'을 마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곡우물을 마시면 잔병을 앓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곡우물 중 단연 으뜸은 거제수였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껍질이 종이와 같이 얇아 편지지 대용으로도 쓰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재길 속의

동물

수달

족제비과의 포유류로 전국 하천에 흔하게 분포하였으나 수질 오염과 모피 생산을 위한 남획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어 1998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내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생물로써 오대산의 대부분 하천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열목어

오대산은 우리나라 대형 어류인 열목어의 최대 서식지입니다. 연어과 냉수성 어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멸종이 예상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어류로, 주로 1급수에 수온이 낮은 하천 상류 지역에서만 서식합니다. 선재길과 나란히 흐르는 오대천은 열목어의 주요 서식지로 선재길을 걷다 보면 상류로 힘차게 올라가는 열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2017 오대산국립공원 화전민터 일원 문화재 지표조사〉
제작 담당:자연환경해설사 김정은
감수:국립국어원 교수 김주미